

<서평>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살아나라』

박영선의 설교와 성서학의 대화

김정우 편집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5

정창균*

들어가는 말

이 책은 박영선 목사의 설교를 16명의 신규약성서학자들이 성경해석의 관점에서 평가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박영선 목사는 1980년대 초, 30대 중반의 부목사로서 안식년 중이던 홍정길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남서울교회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장안의 이목을 끌며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만큼 그의 설교는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 그가 개척하여 목회해온 남포교회 만이 아니라, 국내외 도처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눈을 열고, 신자로서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도전과 안내판의 역할을 해왔다. 그가 이제 목회현장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이 책은 그의 은퇴를 기념하여 기획된 논문집이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2015년 11월14일 한국신학정보연구원과 남포교회가 주관하여 남포교회에서 열린 박영선 목사 은퇴기념 논문증정 예배에서 대중에게 발표되었다.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설교학

1. 이 책의 특이점

이 책은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첫째는 박영선 목사의 설교 평가를 성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박영선의 설교와 성서학의 대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실제로 19명의 집필자 전원이 구약 혹은 신약학자들이다. 성서학자들이 박영선 목사가 행한 설교들을 성경의 각 책별로 성서학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나섰다 것은 박영선의 설교가 단순히 한편의 대중설교의 차원을 넘어 성서학적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신학적, 해석학적 경지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구약학자인 김정우 교수가 나서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기념논문집은 흔히 가르치던 학교에서 후학들이 나서서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박영선 목사가 30년 동안 교수로서 몸담았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분과에서도 은퇴기념논문집을 기획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영선 목사 자신의 완곡한 사의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작업을 김정우 교수가 훌륭하게 해내었다. 물론 김정우 교수가 이끄는 한국성서정보연구원과 박영선 목사가 그동안 맺어온 인연이 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우 교수가 나서고, 박영선 목사도 그것을 선뜻 받아들인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오래고 깊은 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신학교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사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해당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김정우 교수가 이 책에 발표한 글에서 박영선의 설교자로서의 사상적 여정을 추적하여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교자 박영선의 현실인식의 궤적을 규명해낸 데에도 김 교수의 학문적 예리함과 함께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 형성해준 둘 사이의 교감과 정서가 큰 몫을 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민영진 교수는 이 책에 수록된 그의 축사에서 두 사람 사이의 이러한 우정을 아름답다고 하면서 매우 부러워 한다. 필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길게 언급하는 것은, 박영선 목사의 은퇴를 놓고 두 사람의 친구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최소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을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기 때문이다.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권두의 두 편의 축사와 권말의 박영선 목사 자신의 “나의 신학, 설교 그리고 목회”를 제외하면 16개의 글이 일련번호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나열되어 있는 16개의 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설교에 나타난 설교자 박영선에 대한 탐구로, 첫 글인 김정우의 “박영선의 시공관과 설교”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박영선의 설교에 나타난 그를 대표할만한 특정 주제들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네 편의 글이 그것이다. 셋째는 박영선 설교의 성경해석에 대한 평가로, 그의 신구약 책별 설교를 다룬 11개의 글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본 서평은 이 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1. 설교자 박영선

김정우 교수는 박영선의 사상의 궤적을 그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박영선을 추적하고 있다. 박영선이 시간에 대한 인식에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생각은 김정우의 뛰어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우는 “시공관”이라는 개념으로 박영선의 현실인식체계와 사상을 요약해 낸다. 그는 박영선의 시간에 대한 이해와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을 생성적 시공관, 영성적 시공관, 역사적 시공관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이와 같이 박영선의 사상을 시공관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요약

해낸 것이야말로 김정우의 공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정우야말로 박영선이 이 책의 마지막에 쓴 자신의 글에서 “내 설교에서 눈여겨 볼 것은 설교의 탁월함이 아니다. 설교를 보며 내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어떤 자리에서 쫓고 일어섰는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한 그 심정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잘 이해하며 즐기기 위해서는 관전 포인트를 파악하고 보는 것이 필요하듯이, 박영선의 설교를 잘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내 역할을 해줄 지침 혹은 틀이 필요하다. 박영선이 그렇게 설교할 때 그는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박영선의 설교를 따라잡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김정우가 마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우의 글은 이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의 다른 글들이 박영선 설교의 분석과 요약과 해설이라면, 김정우의 글은 박영선의 설교에 나타난 그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탐구와 그의 사상 형성에 대한 추적과 창의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김정우는 이 글에서 박영선의 설교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들을 해오고 있는 박영선 본인을 다루고 있다. 김정우는 박영선의 인식과 사상의 변천과정을 그의 설교를 통하여 추적함으로써 박영선을 한 사람의 설교자가 아니라 기독교 사상가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박영선의 설교를 익숙하게 접한 경험이 없는 독자는 김정우의 박영선 해제가 다소 난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박영선의 설교를 익히 들어온 독자에게는 김정우의 해제가 그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박영선의 설교를 명쾌하게 이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어지는 왕대일 교수의 글은 성화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사실은 왕대일이 그의 글에서 박영선 설교의 대표적 주제인 성화를 다루면서 더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설교자 박영선에 대한 규명이다. 그러므로 그는 글의 제목 “구원에서 성화까지”에 “박영선의 삶·박영선의 목회”라는 부제를 덧붙인다. 왕대일은 박영선의 설교를 통한 설교자 박영선을 확인하고

규명하고 느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때로는 전기적 방식으로 때로는 존재나 인식 탐구로 성화라는 주제 못지않게 박영선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박영선 설교의 주제를 언급할 뿐 아니라, 각 장을 “박영선은 신학자이다.” “박영선은 영성의 사람이다.” “박영선은 육신적으로 약하다.” “박영선은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장로교 목사이다.” “박영선은 성공회 목회자이다.” 라는 박영선 자신에 대한 단정으로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왕대일의 글은 설교자 박영선을 다루고 있는 글로 분류해도 좋을 것이다.

2.2. 박영선 설교의 주제들

김정우의 첫 글에 이어지는 4개의 글들은 박영선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특정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이 뽑은 대표적인 주제는 성화, 믿음, 성령, 기도이다.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박영선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대표적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에서도 성화는 박영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만큼 그가 평생 다루어오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왕대일은 박영선의 설교에 나타난 주제를 구원과 성화로 잡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박영선에게 있어서 성화란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인식 아래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읽어낸다. “박영선의 성화론은 인간의 헌신과 사람의 책임이 아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거듭난 인간으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만든다고 본다.”

이 달 교수의 “박영선의 믿음론”은 박영선의 믿음을 주제로 한 책들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해설한다. 박영선에게 “믿음”은 그가 고1 때부터 시작하여 평생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연구한 주제이다. 김동수 교수는 박영선의 성령론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한 때 한국교회에서 논란의 주제가 되었던 성령세례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박영선의 입장을 논쟁이 이루어지던 정황에 비추어 살펴면서 평가하고 있다. 이윤경 교수는 박영선의 저서 『기도』의 각 장에 대한 요약과 해설, 그리고 평가를 균형 있게 덧붙이고 있다. 박영선과 해석을 달리하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2.3. 박영선 설교의 성경해석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사무엘서, 욥기, 호세아의 설교들을 6인의 구약학자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산상수훈, 사도행전, 로마서와 목회서신(디모데전후서)의 설교들을 5인의 신약학자가 각각 다루고 있다. 이곳의 논문들에서는 저자들이 집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우선 방대한 양의 설교들에 대한 평가를 20쪽 미만의 지면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제한이 주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특정 본문의 주석문제나 신학적 주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벌이는 평가나 비평이 아니라, 한 설교자가 목회현장에서 행한 설교 전반을 놓고 성서학적 관점에서 비평해야 한다는 것도 집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이영미 교수가 창세기 설교 비평에서 토로하는 대로 “설교는 주관적인 신앙관과 목회비전에 따라 설교자의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주석의 학문적 엄격성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주석이 본문의 산물이라면, 설교는 본문은 물론 설교자와 청중이 처한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30년 목회를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유명 설교자에 대한 평가라는 점이 집필자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예우와 학자적인 예리함과 신랄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했음을 감지할 수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연유로 집필자들은 학문적 엄격성을 내세운 비평이나 논쟁보다는 대체적으로 설교자 박영선 목사의 성경관과 설교관 혹은 본문 충실도 그리고 그가 지향하는 목회, 신학적 주제 등이 어떻게 본문강해설교를 통하여

전개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요약하고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집필자에 따라서는 박영선 목사가 행한 설교들을 주제를 따라 요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필자에 따라 다루고 있는 책은 다르지만 그들의 박영선 목사의 설교나, 성경해석, 그리고 신학적 입장에 대한 진술은 그 주제나 내용이 다른 집필자의 진술과 간간이 중복되기도 한다. 이것은 박영선 목사의 편에서 본다면 그만큼 그의 해석적 입장과 신학적 입장 설교관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방대한 분량의 설교를 책에 따라 그 내용과 주제와 특별한 사항들을 전문학자들이 이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박영선의 설교를 이해하고 또 읽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과 유익이 될 것이다.

물론 집필자에 따라서 박영선 목사의 특정 본문의 해석이나 본문을 제시하고 연결하는 방식, 본문에 대하여 취하는 신학적 입장, 그리스도중심의 해석방법론, 성경관 등에 대하여 신중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한 언급들은 누가 옳고 틀렸는가 차원보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집필자와 박영선 목사가 서있는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이 책의 의의

이 책은 30년 이상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다가 이제 은퇴하는 박영선 목사를 위하여 교파와 신학적 진영을 초월한 성서학자들이 나서서 그의 설교와 신학과 삶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기리는 작업의 결과라는 점에서 커다란 가치가 있다. 단순히 진영을 초월한 학자들의 참여나 혹은 은퇴하는 선배 학자요 목회자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에서 만이 아니다. 박영선의 설교와 사상 그리고 삶을 그가 힘써 가르친 주제들과, 그가 평생 성경의 책별로 선포해온 설교들을 성서학자들이 요약하고 평가하고 해설한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박영선을 연구하고 그의 설교를 읽고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베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큰 의의를 갖는다.

이 책은 박영선 목사 자신의 글로 끝을 맺는다. 그는 먼저 자신이 자란 신앙생활의 여건을 간단히 요약한다. 그는 신앙의 내용은 내세에 대한 강조와 율법주의요, 방법은 교훈에 의한 강제와 꾸지람에 의한 정죄였다고 회상한다. 그의 이야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짝튼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자신을 어떤 사색의 여정과 신학의 여정으로 이끌어갔는지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신자는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색적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이어지는 그의 설교에 대한 진술을 들으며 그가 평생 그런 주제들을 그런 어법과 태도로 설교해야만 한 필연성을 확인하게 된다. “나의 목회는 현실에 관한 것이었다”는 말로 시작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알아 신앙의 명예를 자신의 현실과 인생에 담아낼 수 있다” 는 말로 이어지는 그의 목회에 대한 진술에서 우리는 그의 삶의 철학의 메아리를 듣는 듯하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은 컨텍스트이고 그 컨텍스트는 하나님이 텍스트를 담아내는 현장이라는 그의 신념,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내 시는가를 보며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아야 되고, 어떤 처지에서라도 신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삶의 철학이다. 그는 강단을 은퇴하면서 설교자에서 기독교 사상가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 접수일 2016년 3월 28일, 수정일 2016년 4월 1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10일